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8. 31.(수) 배포즉시	배포 일시	2022. 8. 31.(수)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웅환 (044-203-4020)
		담당자	서기관 안진호 (044-203-4021)

「수출경쟁력 강화 전략」 발표

1 무역금융 최대 351조원까지 공급(역대 최대규모), 추가예산 120억원 투입을 통해 물류·해외인증·마케팅 등 수출활동 총력 지원

2 업종별 협회, 경제단체로부터 접수한 139개의 현장 애로·규제 중 33건을 연내에 해소하여 수출 걸림돌 제거

3 대중 수출 감소, 반도체 가격 하락, 높은 에너지 가격 유지 3대 리스크에 대한 중점 관리

4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6년까지 R&D 3.7조원 지원, 전문인력 14만명 양성, 원전·방산·플랜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

5 총리주재 「무역투자전략회의」 운영을 통해 범부처 수출관리체계 가동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8월 31일(수) 부산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‘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’에서 『수출경쟁력 강화 전략』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.

'22.1~7월까지 수출입 동향 및 전략 수립 배경

□ 수출은 **역대 최대 실적**(7월 누적 4,111억불)**을 달성**하고 있으나, **에너지 가격 급등**으로 무역수지는 **7월까지 153억불 적자**를 기록 중임

* (품목) 철강(23%), 석유화학(14%), 석유제품(90%) 등이 증가세 견인
(시장) 아세안(30%)·美(18%)·EU(9%) 및 중동(19%) 주력·신흥시장 고른 증가

○ 특히, **원유, 가스, 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**이 전년 동기대비(1~7월) **501억불 증가**(+89%)하면서 **무역 적자에 직접적 영향**을 미치고 있음

*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, 독일 등 산업선진국 공통적으로 무역수지 악화

□ 향후, ①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**글로벌 경기침체**와 **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**, ②수요 둔화로 인한 **반도체 가격 하락**, ③**높은 에너지가격 수준 지속** 등이 **우리 무역의 3대 리스크 요인**으로 작용할 **전망**임

□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**올해 한국 수출**은 기존 **최고실적**(`21년 6,444억불, 세계 7위)**을 넘어 세계 6위로 올라설 것**으로 **기대**되나,

○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**수출 증가율이 둔화**되고,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에 따라 **무역수지 적자 확대**도 **우려**되고 있음

□ 현재까지 국제수지 측면에서 **상품수지와 경상수지**가 비교적 **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** 중이지만,

* (상품수지, 경상수지) 소유권 이전 기준, 해외생산·수출도 포함(한은 발표)
(무역수지) 통관 기준, 해외생산·수출 미포함 (산업부, 관세청 발표)

○ 정부는 **現 무역적자와 당면한 리스크**를 **엄중하게 인식**하고, **범부처 수출 총력 지원**을 위해 **이번 『수출경쟁력 강화 전략』을 수립**하였음

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 주요 내용

1.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① **무역금융, 물류, 마케팅, 해외인증 등 수출활동 지원을 확대**하겠습니다.

○ (**무역금융**)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하여 **최대 351조원*(역대 최대)까지 무역금융을 공급**하고, 기업별 **보증 한도**도 **확대****(중소·중견 50억원 → **중소 70억원, 중견 100억원**)하겠음

* **(22년 경제정책방향)** 261조원 → **(7월 비상경제장관회의)** 301조원 → **(8월 비상경제민생회의)** 351조원

** 보증한도 확대로 여신한도(외국환은행) 소진 기업도 추가 제작자금 등 대출 가능

- 또한, **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**하여 수출기업들의 **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**하겠음

* (품목) 주요자원·시설재·공장자동화 물품 → 제조기업限 네거티브 전환(사치·소비재 제외)
(한도) 중소·중견 50억원 → 중소 70억원, 중견 100억원

○ (**물류비**)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**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**하여 중소·중견 **수출기업 750개社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***하고,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**규모의 특별 저리융자**도 제공**하겠음

* (물류비 지원) 물류 바우처 지원(최대한도 2천만원) 및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현지물류 서비스 지원(하반기 지원 계획 공고 예정)

** (저리융자) 금리 연 2~2.5%, 융자기간 3년(2년거치, 1년 분할상환), 기업당 최대 3억원(무역협회, 8월부터 추진)

- 이와 함께, 장치율을 고려하여 부산신항 內 **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現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**을 검토하겠음(해수부, 9월~)

○ (**해외인증·마켓팅**) **마켓팅,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**하여 중소, 중견기업의 **해외 인증 획득 비용**을 지원하고, 대규모 O2O 수출상담회인 **붐업 수출 코리아(11월)를 개최할 계획**임

* (해외인증 비용 지원) 130개社 중소, 중견기업 인증 획득비용 지원(9월~, 20억원)
* (O2O 상담회) 유망분야 중소·중견기업 해외 바이어 연계(2,000개社 지원)

○ (**통관지원**) **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**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**수입신고 수리 前 반출을 허용***하고, **자율관리 보세공장**에 대해 원칙적으로 **모든 물품**의 **반입**을 **허용****하여 통관부담을 완화하겠음

* (혜택) 세부담 완화(완제품 세율 적용), 자금 유동성 확보(최종수입분까지 징수유예), 신속통관
** 현재는 하자보수 등 제한적 사유로만 보세공장 내 물품 반입 허용

2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.

○ (**성장단계별 수출지원**)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**수출 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***하고, **유망 소상공인**을 대상으로 수출 全주기에 걸친 **지원****을 **강화**하여 수출 저변을 넓혀 가겠음

* (현행) 수출실적 기반 한도심사 → (개정) 자본금 등 재무상태 기반 한도심사(11월~)
** 수출실무교육→디지털 콘텐츠 제작→온라인 플랫폼 입점·판촉 지원→사후관리

○ (**디지털 수출**)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**27년까지 전국 30개소로 확대(現 6개소)**하고, 온라인 수출 대행·지원하는 **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***하겠음

* (디지털 무역상사) '23년 100개사 시범운영
(디지털 무역 전문인력) 민관 협업을 통해 '23~'27년간 1만명 양성

3 현장 규제·애로를 적극해소 하여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.

△ (그간의 경과) 업종별 협회 및 경제 단체로부터 접수한 **4대 분야**(기업부담 완화, 물류·통관, 신산업, 친환경전환) **건의과제 139건**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

○ (연내 해결과제) 33건의 과제는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그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**연내에 완료**하고, **신속하게 집행**해나갈 **예정임**.

【수출기업 규제·애로해소 주요사례】

① **(기업부담 완화)** 수출기업의 **원가경쟁력 제고**를 위해 **바이오납사 수입**에 대한 **석유수입 부과금 면제**(12월)

기대효과 '25년까지 바이오납사 **수입비용 90억 절감(수입 1만톤당 2.3억원 절감)**

② **(물류·통관)**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**R&D용 물품**에 대한 **반출입 절차 간소화**(상시 반출입 허용 및 신고생략) (보세공장고시 개정, 11월)

기대효과 **R&D 센터로 상시 반출입이 가능**해져 **연구개발 지연 예방**

③ **(新산업) 바이오 원재료 수입**시 **사전서류 검토가 완료**되면 **입항 前 검역 완료 처리**하여 연구·생산활동 촉진 (검역기준 개정, 12월)

기대효과 검역절차를 단축하여 **원재료 물품변질 방지** 등 **비용 절감**

④ **(친환경) 다수의 중소기업**이 **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계약**을 **집단으로 체결**할 수 있도록 허용* (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고시 제정, 9월)

기대효과 다수 **중소기업**이 함께 **직접구매계약 체결**시 대기업 등 대규모 설비 보유기업과 동일한 **가격협상력 확보**

○ (규제혁신 TF 논의과제) 부처간 협의를 통해 **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**(52건)는 「**경제규제혁신 TF**」를 통해 **구체화**하겠음

* 예시 : **(기업부담 완화)** 공장 압력밸브 안전검사 주기 합리화,
(물류,통관)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수입요건 확인면제,
(신산업) 전동지게차용 배터리 규격 및 인증제도 마련
(친환경) 재생원료 사용제품 인증제도 마련

→ 노동시장 구조 개혁, 기업 투자지원 강화 중장기 과제(54건)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

2. 3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.

① 대중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, 산업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○ (경제협력) ICT 융복합*, 첨단 소부장**,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**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**해 나가겠음

* 디지털 헬스 로봇 로드쇼(9월), 한-중 미래 혁신 산업 대전(10월)

** 광시 자동차 GVC 진출 파트너링 플라자(9월), 다롄 조선기자재 O2O 상담회(10월)

- 중국의 **탄소중립 2060, 제로코로나 정책**에 맞춰 **스마트시티, 재생에너지 등 전략 그린산업 수출을 지원***하고 **한국 소비재를 대상으로 對中 디지털 마케팅 지원**을 강화하겠음

* 스마트시티, 스마트팜, 신재생에너지, 그린모빌리티 4대 對中 전략 그린산업에 대해 기술수요 협의, 국내 기업 프로젝트 참여, 현지수요 매칭 등을 지원

○ (고위협력) 한·중 수요 30주년을 계기로 **산업-통상장관회의를 개최**하고(금년 하반기), **한·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하여** 우리 기업의 **대중국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**하겠음

②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○ (경쟁력 향상) **기업투자**(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)**를 총력 지원*하고, 인력 양성**(향후 10년간 15만명), **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**(`30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% 달성 목표) **등**을 통해 **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**를 지원하겠음

* 국가첨단전략산업법('22.8월 시행)을 근거로 입지, 인프라, 절차 간소화 및 세제지원

○ (팹리스 수요 발굴) **팹리스·소재/부품 기업** 대상으로 **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**하고, **비즈니스 상담회 개최**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겠음

* 한국관 운영 : SEMICON CHINA(상해, 10월), SC22(달라스, 11월) 등

○ (**단기 유동성 지원**)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**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, 수출보험 우대** 등 **단기 무역금융 지원**을 **강화**하겠음

* (수출신용보증 및 단기수출보험) 한도 1.5배 우대, 보증료 20% 할인
(국외기업 신용조사) 연간 5회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

3 에너지 수입수요를 관리하고,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○ (**연료 대체**) 가격이 급등한 LNG와 석유를 **다른 연료**(LPG 및 바이오 연료 등)**로 대체**하여 **에너지 수입액 절감을 추진**하겠음

* LPG 혼소(동절기 LNG 수입액 △ 8.8억불), 산업체 연료전환(도시가스→LPG, △ 4.9억불), 낙후 디젤발전기 교체, LPG 히트펌프 보급,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·이용확대 등

○ (**효율개선**) 산업, 건물, 수송 3대 분야 **에너지 수요 효율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**하고, **에너지 효율투자, 사업화 시설** 등을 신성장·원천기술 **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**하겠음

* (산업)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제도, (건물) 에너지 캐쉬백 전국 확대, (수송) 전기차 및 중대형 승합·화물차 연비관리 강화

3. 수출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.

1 주력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겠습니다.

○ (**투자확대**)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**'26년까지 정부 R&D 약 3.7조원을 지원***하는 한편, **세제 지원과 규제개선****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 할 예정임

* 친환경 및 자율운행 선박, OLED, 친환경차, 프리미엄 철강, 첨단·스마트기계, 저탄소 화학소재, 친환경 섬유, 시스템 반도체

**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,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

○ (인력) 석·박사급 R&D·설계 인재 육성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 **전문인력**을 **26년까지 총 14만명을 양성***하고, **대학 특화과정 신설, 외국인력 제도 개선****을 통해 **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**에 대응하겠음

*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(R&D),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사업 등 정부 인력 양성 사업 중기재정 계획 기준

** 첨단분야 외국인 유학생 비자, 전문 해외인력 네거티브 비자 신설 예정

○ (공급망 안정) **공급망 정보시스템을 구축**하여 **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**하고 기업들의 **공급망 전략 수립을 지원**하는 한편, **원자재 관련 통상 협력과 대체 수입선 발굴 지원**을 강화할 계획임

* (공급망 정보시스템) 주요품목 가치사슬-수급현황 분석, 위기징후 발생시 관련기업 전파

* (수입선 발굴) 동남아 등 新시장 거점별 대체 수입선 발굴 지원협의회 구성(코트라)

○ (新시장 진출) 특화 전시회, 현지화 지원, 대기업 해외진출 연계 중소기업 동반진출 등 **전략시장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**을 강화하겠음

2 바이오, 2차전지,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.

○ (바이오) **디지털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**하고, **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**(22~26, 1.1만명), **핵심소부장 국산화*** 등 **혁신성장 인프라를 조성**하겠음

* 백신용 효소 등 국산화가 시급한 27개 품목에 대한 R&D 지원('20~'25, 1,132억원)

○ (2차전지) **시험·평가 인프라**를 **구축**(차세대배터리 파크 등)하고, **공급망 협의체 신설**, **무역금융***, **세제 지원****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음

* 글로벌 완성차 4개 업체 배터리 납품 관련 무역보험 총액한도 증액 ('21, 8억불 → '22. 21.5억불)

** 배터리 및 소재기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(6~10% → 8~12%)

○ (소비재) **소비재 거점무역관 지정***을 통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하고, **프리미엄 소비재 R&D**('22, 103억원), **해외인증 특화 지원** 사업을 실시하겠음

* (중국) 항저우, 선전, 상하이 / (유럽) 프랑크푸르트, 함부르크 등

** 현지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인증 관련 정보·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증취득 지원(코트라)

3 방산 · 원전 ·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.

○ (방산) 범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**미국 등 핵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 · 이행**하고, **수출용用 성능개량, 국제공동개발 확대** 등을 통해 **연간 수출액 200억불을 달성**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음

○ (원전) **원전수출전략위원회를 중심**으로 **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**하고 **세일즈 통상 확대, 기술 · 인력 양성, 노형 · 기자재 등으로 수출 다각화** 등 **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**하겠음

* 기술('23~'25, R&D 3조원 이상), 인력(원전 R&D 대학참여비중 확대), SMR 기술개발 지원
**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가동(원전수출협회), 수출바우처 확대(중진공, 7.5→13억원) 등

○ (플랜트) **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*을 확대**하고, **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 · 인프라 신시장 개척**도 지원할 계획임

* 해외 플랜트 수주를 위한 기업의 사업타당성 조사, 해외상용화, 상담회 참가 등 지원

4.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.

1 국무총리 주재 「무역투자전략회의」를 가동하겠습니다.

○ **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**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**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 전략회의를 10월부터 운영**할 계획임

○ 아울러, **산업부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**하여 주요 업종별 협단체, 유관기관 등과 함께 **수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대응방안**을 **논의하겠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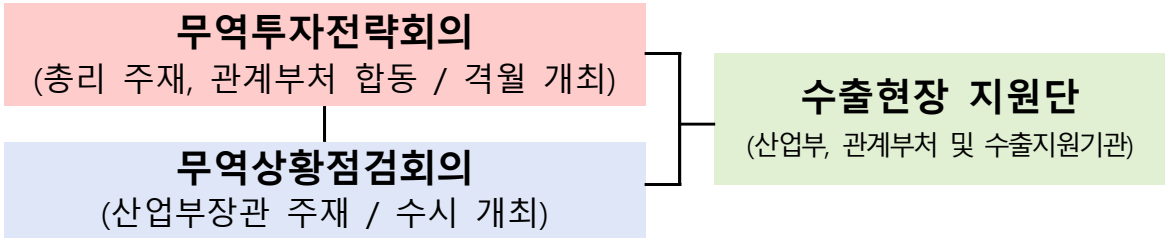
* 품목관(반도체·자동차·전자·바이오 등) 및 지역관(중국·미국·베트남 등)을 지정하여 대응

2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.

○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,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,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**수출현장 지원단을 9월부터 가동할 계획**임

- **전국 수출현장을 방문**하여 지역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임

< 민관합동 수출지원 총력지원 체계 >



□ 이창양 장관은 "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**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**되고 있다." 며,

○ "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**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**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" 라고 밝힘

【별 첨】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웅환 (044-203-4020)
		담당자	서기관 안진호 (044-203-4021)
			사무관 황유정 (044-203-4024)
			사무관 하원석 (044-203-4023)
	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	책임자	과 장 박재진 (044-215-4530)
		담당자	사무관 박정주 (044-215-4531)
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	책임자	과 장 허만욱 (044-215-5710)
		담당자	사무관 김한울 (044-215-5722)
	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대건 (044-204-7500)
		담당자	사무관 배주형 (044-204-7509)
	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희리 (042-481-7810)
		담당자	사무관 박시원 (042-481-781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